

북한의 교육용어 분석 연구

김정래(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북한의 언어정책과 교육용어
- III. 북한의 교육 일반 및 교육과정 용어 분석
- IV. 교육용어 통합을 위한 북한 교육용어의 특징 분석
- V. 맺는 말

I. 들어가는 말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통일이 어떠한 방식을 취하는 간에, 50년의 분단의 기간 동안 남과 북이 이룩한 모든 업적을 생산적·발전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술적인 업적을 통합하는 문제 또한 통일 정책의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분단의 벽은 비단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의 단절과 이질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학문 분야에서의 언어적·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야기되어 왔다.

언어 뿐만 아니라 학문의 영역은 일상생활에 명시적이건 암시적이건 영향을 주는 영역이다. 특히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의 사회화를 도모하는 활동영역이다. 그러니까 남북한 주민의 삶의 이질화 현상은 교육에 의하여 촉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교육학¹⁾에서 사용되는 언어들

1) 교육학의 이론에 따르면 교육학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논리는 교육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에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다. 교육학에서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이

은 주로 교육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학술용어들이다. 이렇게 보면, 교육과 교육학에서 사용된 언어를 분석하는 일은 남북한 간의 이질화를 이해하고, 나아가서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언어통합 작업의 일환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작업임에 틀림없다.

이 연구는 북한의 교육용어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장차 교육용어의 통합에 대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요구되는 기초 작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언어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북한 교육용어의 일반적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활용하여 남북한 교육용어의 비교의 준거로 삼고자 한다. 또한 교육용어의 심층적인 이해를 위하여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와 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북한 교육용어의 특징을 개괄하고자 한다. 교육학의 각론에 있어서, 북한의 교육과정(북한에서는 '교수강령'이라고 함)과 북한의 교실현장을 나타내는 교수형태와 교육평가에서 사용되는 언어분석을 통하여 남북한 교육용어의 통합에 요구되는 기본 원칙을 도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분석 작업은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내면에 깔려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도출하는 일이다. 이러한 연구구결과는 남북한 교육용어의 비교 준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통일정책의 일환인 학술용어의 통합에 기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I. 북한의 언어정책과 교육용어

여기서는 북한의 언어정책 일반과, 북한의 말다듬기 운동에 나타난 언어정책의 방향을 토대로 교육용어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론이 있다. 그러나, 뒤에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북한의 교육학은 하나의 이론체계나 학문이라기보다는 공산주의적 인간 양성이라는 대전제 아래 실제적인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서 보면, 교육학에서 사용되는 언어들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1. 북한의 언어정책과 교육용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남북한 간의 교육용어의 차이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남북한 간의 언어 정책의 차이에 일차적으로 기인한다. 물론 50여 년간의 단절로 인한 남북 주민들의 언어적 습관이 언어 용법과 습관의 차이를 야기시킨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당국에 의하여 야기된 언어적 차이를 전자보다 더 의도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북한의 언어정책은 남한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국이 언어의 용법이나 용어의 선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뜻이다. 북한 당국의 적극적 개입에는 적어도 두 가지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언어정책은 주체사상 이후 외래어와 외국어 차용을 적극 배제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한자어의 우리말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정책 의도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말의 순수하고 독창적인 어휘를 발굴하고 그것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은 외국에서 들어온 어휘나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서 주로 고유명사를 대상으로 할 때 흔히 나타난다. 이는 순수 언어적 측면에서 고찰해야 할 측면이다.

둘째, 이 연구의 초점이 일차적으로 교육용어에 맞추어져 있는 한, 북한의 교육용어를 분석하는 데에는 북한의 교육학 즉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구조와 원리에 나타난 북한교육의 특징을 살펴보는 일이 요구된다. 바꿔 말하자면, 사회주의 교육학의 열개와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교육용어의 일반적 특징을 분석해 내는 일이다. 우선 여기서는 교육용어의 언어적 측면의 접근보다는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열개를 검토함으로써 교육용어가 갖는 전문어로서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²⁾

무엇보다도 북한의 교육용어 분석의 대상은 '사회주의 교육학'으로 통칭되는 교육학 문헌들이다. 이 점에서 보면,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교육이

2) 교육용어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열개와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본 교육용어의 특징은 다음 장에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며, 이 개념적 범주를 벗어나는 일체의 교육에 관한 언명을 배제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 존재로 키우는 사업'³⁾이다. 그리고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⁴⁾이다. 이러한 대전제 아래 북한에서 사용되는 교육용어는 일차적으로 '공산주의적 인간의 품모'를 갖추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공산주의적 인간을 키우고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인간 개조를 통한 '공산주의적 인간의 품모'를 설명하는 특질은 자주성, 창조성, 그리고 과학성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자주성과 창조성은 남한의 교육에서 언급되는 성격과 동일한 특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남한의 교육에서 강조하는 자주성과 창조성은 개인이 발현하여야 할 개인의 특질을 지칭하는 반면, 북한의 사회주의교육에서 언급되는 자주성과 창조성은 공산주의적 인간의 품모를 갖추게 하는 데에 요구되는 특질, 다시 말하자면 집단주의적 인간의 개조에 요구되는 특질을 지칭한다. 그러니까 이 특질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데에 중점을 둔다. 그리고 공산주의적 인간은 공산주의 혁명사상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사회주의 교육학에 따르면, 과학성이란, '과학적 세계관의 기초'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은 과학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한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혁명적 세계관이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⁵⁾ 따라서 사회주의 교육학에서 강조되는 과학성이란, 남한에서의 과학적 탐구를 위한 합리적 사고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세계관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공산주의적 인간의 개조에 동원되는 교육조건 또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1977.9.5), p. 374.

4) 위의 글.

5) 위의 글, pp. 375~376.

2. '말다듬기운동'과 교육 용어

우선 이 절에서는 앞서 언급한 북한의 언어정책과 관련하여 '말다듬기 운동'에 대하여 개괄하고자 한다.

해방 후 북한은 문맹퇴치와 한자사용폐지운동을 강력히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철자법을 개정하고 어휘정리사업을 벌여가고 있다. "어휘정리사업은 우리말에 들어온 외래적인 어휘들인 한자말과 외래어를 우리말로 고쳐 어휘분야에서 주체를 세우며 우리말 어휘 구성을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하나의 체계로 만드는 사업"⁶⁾이다. 이러한 북한의 어휘정리사업에는 사대주의와 일제 식민통치의 잔재를 청산하고 주체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외래적인 어휘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민족어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깔려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말대사전」에 의하면, '말다듬기'는 "한 민족어의 어휘구성 속에 들어온 필요 없는 외래적 요소와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낡은 요소를 가셔버리고 고유어를 기본으로 하여 단어들을 하나의 체계로 발전시키는 일. 민족어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언어생활을 마련해 주기 위한 중대한 사업"⁷⁾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는 '말다듬기'의 특성을 교육용어와 교육 상황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를 중심으로 '다듬은 말'의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말다듬기운동에 있어서 '다듬은 말'의 '말'이 지칭하는 것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구(句)의 형태를 나타낸 것이 많다. 형태는 「관형사형 + 명사형」으로 이루어진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교육용어는 '계발식교수'를 '깨우쳐주는 교수'로 다듬은 경우를 들 수 있다. '음독'(音讀)을 '소리내읽기로', '자화상'을 '제모습그림'으로, '절음'(絶音)을 '소리끊음'으로, '측정치'를 '재값'으로 다듬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다듬은 말이 「명사 + 명사」의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대개 병렬된 한자성어를 우리말로 풀어서 만들어진 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해당하는 교육용어 또는 교육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

6) 전수태·최호철, 「남북한 언어비교」(녹진, 1989), p. 159.

7) 「조선말대사전」, p. 1060.

다. '계절풍'을 '철바람'으로, '구개음화'를 '입천장소리되기'로, '등고선'을 '높이선'으로, '단층'을 '땅끊임'으로, '단면'을 '자름면'으로, '산수화'를 '경치그림'으로, '연시(軟柿)'를 '물렁감'으로, '삼륜차'를 '세바퀴차'로 다듬은 말의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한자어를 단일한 우리말로 전환한 경우가 있다. 교육용어로 '연시(演示)'를 '보이기'로 다듬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넷째, '말다듬기'가 '주체'를 강조하는 한, '다듬은 말'에 서양에서 들어온 외래어를 일체 인정하지 않고 이를 우리말로 변용한 경우를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리프'(clip)를 '물리개' 또는 '종이끼우개'로, '다이얼'(dial)을 '눈금판' 또는 '글자판'으로, '드라이아이스'(dry ice)를 '마른얼음'으로, '드리블'(dribble)을 '두번물기'로, '드라마'(drama)를 '극'으로, '멜론'(melon)을 '향참외'로, '마후라'(muffer)를 '목수건', '머리수건', 또는 '목도리'로, '카바'(cover)를 '덮개'로, '크로바'(clover)를 '토끼풀'로, '크로스바'(cross bar)를 '가름대'로, '프롤로그'(prologue)를 '머리막', 또는 '머리이야기'로, '마사지'(massage)를 '문지르기'로, '템뿌라'(tempero)를 '기름튀기'로 다듬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째, 서양어는 아니지만, 일본어를 우리말로 바꾼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다미'를 '누비돗자리'로 다듬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상의 유형별 '다듬은 말'의 특성에 비추어, 북한의 다듬은 교육용어가 가지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우리말로 장황하게 풀어놓는 경우에 용어가 잘못 이해되기 쉽다는 점이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언뜻 우리의 '발견학습'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기 쉬우나, 뒤에 논의하겠지만 북한이 교수자 중심의 수업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용어의 의미는 우리의 '발견학습'과는 무관한 '설득에 의한 깨우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북한의 주체사상은 일체의 외래사상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용어가 교육학의 학문적 논의에 사용되는 용어로서의 전문성(technical term)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학 문헌에 외래 이론을 소개하는 경우가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결국 교육용어로서 일체의 외래어를 배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교육이론에서 사용된 언어를 번역하는 노력이 소극적이다. 따라서 북한의 교육학 용어에서는 남한의 교육심

리학 문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S-R이론'과 같은 용어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이 용어의 번역어라 할 수 있는 '자극-반응 이론'이라는 용어도 찾아볼 수 없다.

셋째, 아주 적은 사례의 경우(예컨대, cream의 경우는 '크림'이라고 함)를 제외하고 일체의 외래어를 배제하기 때문에 외래어가 갖는 원래의 뜻이나 그 말이 갖는 뉘앙스를 잃어버리기 쉽다. '드라이아이스'를 '마른얼음'으로 다듬은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크로바'를 '토끼풀'로 다듬은 경우가 후자에 해당한다.

넷째, 교육용어를 우리말로 다듬는 과정에서 교육상황에서의 특정성 또는 전문성을 나타내는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연시'(演示) 또는 '연시'(演試)를 '보이기'라고 하면, 남한에서 사용하는 '시연'(試演)의 의미를 짐작하기 매우 어렵다.

다섯째, 북한의 교육학이 주체적인 입장을 취하는 과정에서 '교육공학'이나 '교수공학' 분야의 이론이나 용어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이나 주체사상을 강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현상이지만, 교육을 과학화하려는 노력의 결여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교원 중심의 교수방법과 그에 따르는 소프트웨어적인 강령에 사용되는 용어들로 교육용어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의 교육학이 주체사상의 영향으로 외래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상은 북한의 교육학이 국제화, 세계화 추세를 외면하는 현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말다듬기 운동의 경우에도, 용어의 변용 또는 신조어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순 우리말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래어가 수용될 여지를 좁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순 우리말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지 않는 외래어(또는 외래이론)는 북한의 교육학에서 수용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순 우리말로 언어를 다듬어가는 정책이 우리말의 순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는 남한의 언어나 교육용어들이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받아들이는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의 입장을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보면, 우리말의 의미역을 넘어서

거나 우리말의 상응하는 용어가 없는 경우에는 외래어를 신중히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순 우리말로 바꾸는 언어정책이 교육용어의 선택·채용의 과정에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Ⅲ. 북한의 교육 일반 및 교육과정 용어 분석

앞에서 북한의 언어정책이 준 영항에 따른 교육용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주로 언어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와 특징을 개괄함으로써 북한의 교육학의 구조적인 특성과 구성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교육용어의 통합·방안의 방향 설정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와 특징

북한에서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와 주체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하여, 자주성, 창의성, 그리고 과학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 원리는 보다 구체적인 사회주의 교육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⁸⁾ “사회주의 교육에 테제”에 따르면, 사회주의교육사업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첫째, 교육에서 당성, 노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즉 사회주의교육은 그 계급적 본질에 있어서 당적이며 노동계급적인 교육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주의교육을 이끌어 가는 것은 공산주의와 주체사상이다. 이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당의 지도이다. “당의 영도를 떠나서는 교육사업에서 당의 의도와 정책적 요구를 관철할 수 없다. 당의 영도를 강화하여 교육사업에서 ‘자유주의’와 무규율성을 없애고 모든 교수교양사업을 당의 방침대로 진행하는 혁명적 규율을 세워야 한다”⁹⁾고 함으로써 당의

8) 김일성,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pp. 376~380.

9) 위의 글, p. 377.

일사분란한 지도와 통제 아래 교육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유주의를 배척함으로써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가정을 깔고 있다는 점과, 자본주의를 일체 배척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여러 교육 관련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또는 자유주의가 가미된 일체의 교육을 '범벽식교육', 그리고 범벽식교육에 의하여 길러진 사람을 '범벽사람'으로 규정하여, 불순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인간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에서 '주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차적으로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인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주의를 이해하는 방식과는 달리, 북한이 교육에서 주체를 내세우는 데에는 공산주의 이념과는 상치하는 '조선문화를 가미했다'는 점이 특색이다.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원만히 하며 우리나라 혁명과 건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면 조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조선혁명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주체'를 민족문화에 접목시키고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당의 정책을 다시 연결시킴으로써 '주체사상'을 사회주의 교육학에 도입하고 있다. 물론 주체사상에는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접목에 그 실제적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용어에 있어서 일체의 외래어나 외국의 교육 전문용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와 같이 '주체'를 강조하는 북한의 독특한 사회주의 교육에 기인한다.

셋째,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칙에는 혁명실천을 강조함으로써 지식의 내재적 가치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하는 것은 사람들을 쓸모 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¹⁰⁾ 따라서 북한의 교육에선 학생들에게 실천과 결부시키지 않는 일반원리나 이론을 가르치는 것은 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교육은 사람들을 산 지식과 실천능

10) 위의 글, p. 379.

력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데에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주의 교육학' 등 북한의 교육 문헌에 나타나 있는 교육용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일체의 이론적인 용어가 없으며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요구되는 용어들이 발견될 뿐이다.

넷째, 북한의 교육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교육이 그렇듯이, 국가가 관장하고 국가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북한은 교육사업을 '사회주의 국가의 사상교양의 무기'라고 간주한다. 이는 교육이 개인에게 맡겨질 경우, 온 사회를 '노동계급화, 혁명화, 인테리화'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교육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교육용어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열개와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주의 교육학의 구조와 내용

가. 사회주의 교육학의 구조

무엇보다도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을 조망해 볼 때, 그것이 학문적 체계로서 '교육학'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 물론 이러한 의문은 남한의 교육학적 시각임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이 '교육학'이라는 명칭을 갖추려면 적어도 학문의 속성인 명제와 명제의 집합인 이론과 그 열개를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사회주의 교육학'은 '공산주의적 인간의 개조'를 최상의 명제로 보고, 그것에서 연역되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사업원칙 등을 도출해 내고, 다시 그것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를 토대로 구성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학을 구성하는 요소를 일일이 살펴보기 전에, 북한에서 실시되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열개를 개괄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사회주의 교육학의 구조

공산주의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원칙	
① 당성, 로동계급성 구현 ② 교육주체를 인민의 이익에 맞춤 ③ 혁명의 실천	당의 유일사상체제 당의 유일지도체제

〈표 1〉에 나타난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열개를 교육학의 성격과 관련하여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학의 성격에 관한 논쟁은 외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학자에 의하여 열 띠게 논의되어 왔던 주제이다.¹¹⁾ 이를 간단히 소개하면, 교육학은 '교육'이라는 실천활동 또는 실제적 활동을 탐구하는 '실제적 이론'(practical theory)이라는 입장과 순수과학이론을 교육이라는 활동에 적용하는 분야라는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자가 교육학이 '실제적 학문'으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반면에, 후자는 교육학이 기존의 정형화된 과학이론을 교육이라는 '현장'에 적용한 데 불과한 지식의 분야(field of knowledge)에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학의 성격에 관한 양자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학문적인 견해가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다. 그 기본적인 가정이란 교육학을 연구하는 이들의 이론적인 노력은 어떤 입장에 서건 간에 교육이라는 실제적 활동(practical activities)을 전제하고 또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11) 이 논쟁과 관련한 문헌은 비교적 많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 논쟁을 대표하는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P. H. Hirst, "Educational Theory," in J. W. Tibble (ed.), *The Study of Education* (London: Rotledge and Kegan Paul, 1966); P. H. Hirst, "Educational Theory," in P. H. Hirst, *Educational Theory and its Foundation Disciplines* (London: Rotledge and Kegan Paul, 1983); D. J. O'Connor, *An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Education* (London: Rotledge and Kegan Paul, 1957); 정범모, 「교육과 교육학」 (서울: 배영사, 196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등이 그 대표적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학의 학문적인 노력은 그 방식이 다를 뿐, '교육'이라는 실제적 활동에 대한 이론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 합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 '실제'(practice)는 당위를 그 논리적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교육학은 그 성격에 관한 다양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규범학'의 속성을 가진다. 교육학이 규범학으로 인식되는 한, 교육학은 교육이라는 활동에 전제되어 있는 규범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정당화하는 이론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교육학은 교육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할 때, 규범적 성격의 교육활동의 사회적 기능 내지는 사회적 효용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교육학의 학문적 논쟁에 비추어 보면,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일개에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이 북한 교육의 이상 또는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라는 교육목적규범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에서 도출되어 나오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와 '사회주의 교육사업의 원칙'이 남한에서 논의되는 '교육실제'(또는 '교육현장')와 동일한 맥락에서 비견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북한의 '기본원리'와 '교육사업의 원칙'이 당의 유일사상체제 그리고 당의 유일지도체제와 일관되어야 하고, 구체적인 교수활동의 방향이 수령의 교시와 강령에 전적으로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에서의 '교육실제'(educational practice)란 반드시 당의 사상·지도체제와 수령의 교시에서 연역되어야 한다는 점이 우리가 기존의 교육학을 바라보는 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독특성이다. 이 독특한 당위성을 격조 있게 명명하고자 한다면, 그것에 가장 합당한 용어는 '주체성' 또는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체사상'이 모든 실제적 활동의 대전제가 되는 한,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은 다른 사회주의에 근거한 교육이론과는 전혀 다른 강령적·교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사회주의 교육학의 내용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은 남한의 교육학과 같은 학문의 성격보다는 행

동강령의 성격이 짙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에 포함된 교육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학의 내용과 이론의 구조를 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사회주의 교육학'에서 교육학 이론적 진술이나 이론의 소개, 설명, 이론의 현실적 적용 등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북한의 교육용어가 이론적(학문적) 관심보다는 김일성의 교시와 당 강령에 맞추어서 고안해낸 행동강령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수학교육의 경우, 수학교육의 중요성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배움으로써 나타나는 효용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문교육의 경우, 한문교육의 중요성이 우리 조상의 고전 이해나 언어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보다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남조선 출판물을 이해하는 데서 찾고 있다. 또한 체육교육의 사명은 청소년 학생들의 건강이라는 내재적 목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공산주의 도덕교양은 개인의 도덕성 함양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와 강령에 따른 행동강령의 진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교육학의 내용을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이상의 논의와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북한 교육의 목표는 제일 최고의 규범으로서 '주체사상'에 따른 교육에 두고 있다. 물론 주체사상교육은 사회주의 교육목적과도 맞물려 있다. 북한의 '교육테제'에 따르면, '사회주의 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여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에 두고 있다. 즉 공산주의적 인물을 양성하기 위한 덕목인 '자주성'이 자연스럽게 주체사상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시각에서 보면, 주체사상교육은 공산주의 혁명에 기여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체사상의 교육목표를 살펴보기로 한다.

주체사상의 교육목표는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테리화', '공산주의화'로 규정된다. 첫째, '혁명화'는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 엮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포

〈표 2〉 사회주의 교육학의 내용

정치사상교양	주체사상의 원리교양		
	수령과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공산주의교양	혁명적 략관주의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로동을 사랑하는 정신의 교양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교양	
준법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			
과학기술교육	일반지식교육	일반	사회과학분야의 일반기초지식교육
		기초	자연과학분야의 일반기초지식교육
		지식	외국어교육
		교육	한문교육
		기초기술교육	
	예능교육		
	전문지식교육	사회과학분야의 전문교육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교육	
		전문기술교육	
	체육교육	학교체육교육, 과외체육교육	
정서교양	정서교양		

합한다. 그러나 이 때의 혁명화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은 결코 자연발생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수령의 영도에 의해서만 근로인민대중이 각성하고 주체적 역량이 꾸려질 수 있으며 혁명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질 수 있다"¹²⁾고 보기 때문에 혁명화에 주체사상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것은 인민의 자주성과 수령의 영도가 서로 모순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혁명적 세계관 형성의 기본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사람들에게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

12) 「김일성 저작집」, 제25권 (조선로동당출판사), p. 6.

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주체사상과 주체의 혁명이론을 깊이 파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 대중은 수령의 영도 밑에서만 역사의 주체, 사회발전의 힘있는 동력으로 될 수 있고 자주성에 대한 요구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다”고 하여 수령의 절대화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교육용어의 선택과정에서도 잘 나타난다.

둘째, ‘노동계급화’는 노동계급이 혁명의 역사적 사명을 띤 영도계급이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목표로서,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착취구조를 타파하는 사상의식이 노동계급에 의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계급투쟁의 주체로서 노동계급의 양성을 역설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계급화가 수령의 영도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말은 노동계급의 혁명관이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무장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보는 혁명적 수령관을 나타내고 있다. 혁명적 수령관은 북한의 교육학 서적에 수령의 교시를 먼저 소개하고 그 교시에 맞추어 교육과 교육학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교육용어는 수령의 교시의 범주 안에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인테리화’는 온 사회 성원을 의식 있는 노동자 계급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인민을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혁명간부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인테리의 혁명화’는 과거 자본가와 지주 계급을 근로인민에게 복종하는 노동계급의 인테리를 만든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교육목표로서의 인테리화는 인민을 혁명간부로 만드는 일과 과거의 자본 계급을 노동인민에게 복종시킨다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다. 이 목표는 공산주의 도덕교양을 구성하는 덕목들에 잘 나타나 있으며, 집단주의를 표방하는 교육용어를 만들어내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목표이다.

넷째, ‘공산주의화’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드는 일을 가리킨다. 그러나 여기서 주체사상을 설명하는 말인 ‘공산주의화’는 주체사상이 지향하는 인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관련성은 공산주의적 인간의 양성에 주체사상이 뒤섞여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 교육용어의 일반적 특징

북한의 교육용어는 대부분 교시와 당 강령에 기초한 강령적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북한의 교육용어는 교육학이라는 학문적 범주에 기초하여 생성·채용·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요구되는 자질과 특성,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강령적 언어들이다. 다만 교육용어들 간에 나타나는 선후관계 또는 논리적 관계를 굳이 찾아보자면, 모든 교육용어의 당위성이 공산주의 도덕관과 수령의 교시(주체사상)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계는 앞서 제시한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의 구조와 내용>을 통하여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사회주의 교육학'에 따르면, 공산주의도덕은 ① 세계관 발전의 최고단계를 이루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도덕, ② 로동계급과 전체인민을 위한 집단주의에 기초한 도덕, ③ 정치생활규범, 법규범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사회발전을 다그치는 혁명적인 도덕, ④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 기준으로 하는 도덕¹³⁾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비추어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유추하는데, 북한의 '사회주의생활양식'이란 한 마디로 공산주의도덕교양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의미한다.

또한 교육용어로 구성되는 교육이론의 진술도 교육용어가 강령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훈시, 계도, 설득의 문장진술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남한의 교육이론이 규범적인 것이긴 해도 진술방식에 있어서 서술형을 띠고 있다는 점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교육용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교육학 이론을 구성하는 구성체(components)라기보다는 학생들의 실천을 전제한 행동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을 전제로 한 행동강령의 성격을 가진 교육용어들이 지향하는 바는 두 말할 나위 없이 공산주의 인간화에 있다. 다만 북한의 교육에서 공산주의적 인간의 육성에 주체사상이 결합되어 수령의 교시와 당의 강령이 이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교육용어가 갖는 실천성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교수행위나 교육평가와 관련된 교육용어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

13) 김형직 사범대학, 「사회주의 교육학」, (김형직 사범대학출판부, 1989), pp. 79~87.

다. 북한에서 교수형태의 가장 기본적이고 으뜸으로 삼는 '깨우쳐주는 교수방법'도 사회주의 본성에 맞는 능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교수방법이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의 대표적인 예를 ① 설명(이야기, 담화), ② 토론(논쟁, 문답식), ③ 실물교육과 직관교육¹⁴⁾으로 간주하는 것은 교수방법의 이론적 가능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수령의 교시와 당의 강령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교육평가는 한 마디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 방법이 모두 동원된다고 볼 수 있다. '학업성적료해평가', '과제수행정형검열', '담화 검열', '5단계채점법', '10단계채점법' 등¹⁵⁾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교육용어의 실천적이고 강령적인 측면은 '시험'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데서 잘 나타난다. "시험은 교수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소화정도를 검열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¹⁶⁾라는 김정일의 교시에 기초하여 '이해수준(정도)'을 의미하는 '소화정도'라는 용어가 교육평가와 관련된 문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4. 교수-학습 방법의 진술 용어

앞의 제3절은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을 토대로 한 북한에서 사용되는 교육용어가 갖는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육용어의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가. 교수형태의 분석

북한의 교육에서 이론의 학습보다는 실천을 중요시한다는 점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교수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은 수업보다는 실험, 실습, 야외관찰, 견학 등과 같은 실천적인 방법을 중시하고 있

14) 위의 책, pp. 156~168.

15) 위의 책, pp. 204~212.

16) 위의 책, p. 208.

다. 다음 <표 3>은 교수형태를 분류한 것이다.

<표 3> 사회주의 교육학의 교수 형태

이론교육	강 의
	학과토론
실천교육	실 험
	실 습
	련 습
	견학 및 답사
	학과논문(졸업논문) 작성

우선 북한에서 사용하는 ‘교수’라는 용어의 사전적 풀이는 “학교교육의 기본형태로서 일정한 과정 안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식, 기능 등을 가르치는 일 또는 그 체계적인 과정”이다. 이 풀이는 남한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다만 ‘교수’를 ‘교육강령의 실천방안’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점에서 ‘교사의 수업행위’를 ‘교수’로 보는 남한의 의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한에서 주어지는 교과내용(교육과정)을 교사의 개성에 맞추어 교수안을 짜고 수업을 하는 이른바 교사의 재량권이 있는 데 반하여 북한의 교수행위는 교사의 재량권이 적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실지로 북한의 모든 교수행위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가 포함되어야 하고, 교사의 수업준비의 대부분이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록(또는 저작집)에서 관련된 교시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한다.

그리고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북한에는 ‘학습’이라는 용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교육이 학생중심적이 아니라 교원중심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이 교원중심적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은 북한의 교육이 공산주의적 인간의 양성을 일차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에서는 ‘학습’을 사용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북한의 교육용어에 ‘학습’이라는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습’의 의미가 남한과는 달리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전에 보면, ‘학습’은 “정치리론 수준과 실무능력을 높이며 전

문지식과 일반지식, 과학기술 지식을 소유하고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배우고 익히는 일.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임무이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학습'의 의미를 유추해 보면, '학습'은 '과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은 '학습제일주의'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 정책, 영광 찬란한 혁명력사와 선진과학 기술 지식으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에 제일 관심을 두고 거기에 힘을 쏟아 붓는 학습태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 정의에서 '학습'을 '과업'으로 대치하면 북한에서 사용하는 '학습'의 의미가 '과업'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험 실습과 같은 실천적 방법이 중시되는 맥락에서 교실내의 수업과 교수 방법도 두드러진 특징을 띠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교수방법은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으로서 가장 으뜸인 교수방법으로 간주한다. 북한에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이란 학생들에게 혁명적 사상의식을 형성시켜 주며 쓸모 있는 산 지식을 습득시켜 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우월한 교수방법이라고 한다. 이 교수방법은 '깨우쳐주는'이란 수식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교사에 의하여 지식 등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촉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나. '교수'와 관련된 용어

이제까지는 북한의 교육용어로서 '교수'와 '학습'이 갖는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교수'와 관련된 용어로서 비교적 빈번하게 쓰이는 교육용어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범주에는 '교수준비', '깨우쳐주는 교수방법', '해설과 설득'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교수준비'는 남한의 '수업준비' 또는 '교재연구'에 해당되는 말이다. 우선 이 말의 사전풀이「조선어대사전」를 살펴보면, "학교에서 교수사업"을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준비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교재를 연구하여 교수안을 잘 쓰며 실험실습을 준비하고 교편물을 만들어 갖추는 것과 같은 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 교육학」¹⁷⁾에 따르면, '교수준비'에는 '교수내용연구', '교육강령연구', '학생료해', '교수진도표 작성', '직관실물수단의 준비' 등이 포함된다. 이를 남한의 관련 용어와 대비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교수용어 남북한 비교

북한용어	남한용어
교수내용연구	교재연구
교육강령연구	교육과정연구
교과서내용연구	-
학생료해	학생이해(학습, 발달, 흥미, 태도 등)
교수진도표 작성	교수안 작성
교수안 작성	수업지도안 작성
직관실물수단 준비	교구 준비

북한에서 사용되는 '교수'와 관련된 교육용어는 양면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일견 남한의 '발견학습'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용어의 의미는 북한의 주체사상교육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공산주의 인간상에 초점을 두고 혁명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강조하는데, 이 때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이다. '자주성'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은 공산주의 혁명의 완수를 위한 혁명인재의 양성이란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성'이라는 말은 '학습하는 데에 있어서의 자주성 또는 자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이라는 말은 '혁명의식을 깨우쳐준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의 의미에는 학습자보다는 교수자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유추는 '해설과 설득'이라는 교수 용어를 살펴봄으로써 뒷받침된다.

17) 위의 책, p. 188.

「사회주의 교육심리학」¹⁸⁾에 따르면, '해설과 설복'은 사상교양의 핵심적 교수방법이다. "해설과 설복은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을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잘 납득시킴으로써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을 스스로 깨닫고 그에 공감하며 그것을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는 교양방법이다"¹⁹⁾. 남한 식의 의미로 보면, '해설'이나 '설복'은 해설하는 일과 설득하는 일의 경우처럼 교수자 중심의 생각으로 학습자를 끌어들이는 일이다. 그러나 북한의 '해설과 설복'은 앞서 언급한 '깨우쳐주는 교수방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를테면, "결함과 부족점을 잘 깨우쳐주고 납득시키고 설득시켜 그것을 스스로 뉘우치고 고쳐나가게 하는 것이 해설과 설복이다"²⁰⁾라고 설명함으로써, 해설과 설복이 '깨우치는 방법'에 관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남한에서 '깨우치는 일'(발견)과 설득(또는 해설)이 상반된 의미를 갖는 데 반하여, 북한에서 사용되는 의미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깨우치는 일이건, 해설과 설복에 의한 방식이건 북한의 교수방법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공산주의 사상과 도덕으로 무장'하는 데에 있다.

다. 교육평가의 진술 용어

교육학에서 교수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분야는 교육평가 분야이다. 여기서는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과 관련된 교육평가 용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학에서 사용되는 교육평가는 주로 세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그것은 ① 일상적인 학업성적료해평가, ② 시험, ③ 학업성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이다.²¹⁾ '일상적인 학업성적료해평가'는 학생들의 이해(료해)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교수사업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평가로서 남한의 형성적 평가 또는 수시 평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범주의 평가에서 흔히 사용되는 용어는 '검열'이다. '과제수행

18) 김형직 사범대학, 「사회주의 교육심리학」, (김형직 사범대학 출판부, 1989), pp. 118~126.

19) 위의 책, p. 118.

20) 위의 책, p. 119.

21) 김형직 사범대학, 「사회주의 교육학」, pp. 204~212.

정형검열, '담화를 통한 검열', '학습장을 통한 검열', '창작품을 통한 검열' 등이 그 예이다.

'시험'은 일상적인 언어의 '시험'이라는 의미와 함께 남한에서 '고사(考査)'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시험에는 '필답시험', '구답시험'(=문답시험) 등이 있으며, '교종²²⁾, 학년,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이 채용된다.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1977년 김일성이 '10계단체점법'을 채택하였으나, 1988년 김정일이 이를 '5계단체점법'으로 바꾸어 시행하고 있다. '10계단체점법'은 10등급으로 나누어 채점하는 것으로 각기 맞은 점수에 따라 최우등(9~10등급), 우등(7~8등급), 보통(5~6등급), 낙제(4등급 이하)로 구분되며, '5계단체점법'은 최우등(5등급), 우등(4등급), 보통(3등급), 낙제(1-2등급)로 구분된다.

시험을 종류별로 볼 때, 필답시험은 주로 1안, 2안으로 3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답안채점은 김일성 교시를 인용했는가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구답시험의 경우에도 시험관이 임의로 묻는 것이 아니라 구답시험문제표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답변내용은 7~10정도의 대답분량으로 구성된다.

끝으로 '학업성적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남한의 '총괄적 평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남한의 대부분의 총괄적 평가가 필답시험에 의하여 학기 또는 학년 단위의 교과목별 평가를 하는 데에 반하여, 북한의 '종합적 평가'는 "일상적인 학습정형 즉 평상시 과제수행정형, 학과토론과 실험실습에 참가한 정형, 학과논문과 글쓰기정형, 사회정치활동정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를 담보해주는 자료들을 갖추도록"²³⁾ 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을 모두 동원한 평가임을 알 수 있다.

22) '교종'은 사전에 의하면, '학교(종)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탈북한 원로교수의 자문에 따르면, '교종'은 '교과목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위의 경우에는 '학교(종)별'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

23) 위의 책, p. 211.

IV. 교육용어 통합을 위한 북한 교육용어의 특징 분석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본 북한의 교육용어가 갖는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용어가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언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 용어들은 대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개인주의나 개인의 업적주의를 지칭하는 언어들은 규범적으로 비난받는 용어들이다. '수재론'이란 용어의 경우, 이 말은 사회주의 사회가 기초한 '집단주의'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세속적 이기주의와 부르조아적 능력주의를 경계할 때 쓰이는 용어이다. 또한 남한에서 사용되는 '능력론', '공과론' 등의 용어는 북한의 교육용어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수재론'과 관련하여 '개인리기주의', '유전속명론'과 같은 용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배척 대상이 되는 용어들이다.

둘째, 첫 번째 특징과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교육용어에 담겨진 의미에는 자본주의를 배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를 배격한다는 의미를 다시 말하면 곧 공산주의 혁명과 관련된 교육용어가 사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혁명적 학습론', '집단주의 교육', '사회주의 교육학', '혁명의식어' 등의 교육용어가 이에 해당된다.

셋째, 북한의 교육용어는 외래사상을 일체 배격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범벽식 교육'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외래사상을 수용하는 교육은 '범벽식 교육' 또는 '착취사회의 교육학'에 해당된다. 외래사상과 자본주의를 배격하여야 로동계급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려는 교육학이 사회주의 교육학이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점은 외래사상과 자본주의를 배격하는 사회주의 교육학이 주체사상을 연결하는 고리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의 교시에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 있다.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서는 아직 누구도 완성된 리론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본따올만한 사회주의 교육학의 본보기를 만들어 놓은 나라도 없습니다." 이 교시는 북한의 교육학과 교육용어가 외래이론을 일체 배격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셈이다.

넷째, 북한의 교육학이 이론적인 논리 구성보다는 실천적 의미를 중시

하고 있는 바와 같은 맥락에서, 북한 교육용어는 생산성과 실천성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남한의 교육용어가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을 구성하는 논리적 구성요소(logical components)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 이를테면, ‘학습’, ‘발달’, ‘성장’ 등의 개념은 교육심리학을 구성하는 일련의 개념체계이고, ‘수업’, ‘교화’, ‘훈련’ 등은 교수이론을 구성하는 개념군이지만, 북한의 교육용어에서 이러한 이론적 관련성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예컨대, ‘교수형태’를 분류하면서 ‘이론교육’에 ‘강의’와 ‘학과토론’을 포함시키는데, 학과토론이 이론교육에 왜 포함되어야 하는가 하는 논리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천교육’을 구성하는 ‘실험’, ‘실습’, ‘련습’, ‘견학 및 답사’, ‘학과문헌작성’이 왜 실천교육에 해당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남한의 시각에서 보면, 논문작성과 연습은 학과의 성격에 따라 이론적인 활동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육용어를 망라하고 있는 ‘사회주의 교육학’ 등 교육관련 서적은 일차적으로 김일성의 교시와 당 강령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교시나 강령에서 언급되지 않은 교육용어는 당연히 배제된다. 이러한 측면은 북한의 교육학이 주체사상을 표방하면서 외국의 교육이론을 일체 소개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기도 하지만, 모든 교과서, 모든 수업, 모든 평가가 교시에서 연역되어야 한다는 강령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교육용어에는 비록 우리말로 번역되기 어려운 말이라 할지라도 일체의 외래어가 없다. 예컨대, 외래어라고 할 수 있는 ‘피그말리온 효과’, ‘S-R 이론’, ‘peak experience’(극정경험)와 같은 용어를 북한의 교육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외래 용어는 일련의 변용과정을 거쳐서 수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과정이 ‘말다듬기 운동’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 경우는 주로 한자어에서 온 용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가분수’를 ‘분자큰분수’로 변용시켜 사용한 것이 한 예이다. 물론 영어와 같은 서양어를 변용시켜 사용하는 용어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롤’(roll)을 ‘굴대로’, ‘스크린’(screen)을 ‘채눈’으로, ‘아치(arch)형’을 ‘무지개형’으로, ‘크로스바’(cross bar)를 ‘가름대’로, ‘프롤로그’(prologue)를 ‘머리막’, ‘머리시’, ‘머리이야기’로, ‘후쁘’(hoop)를 ‘돌림틀’로 변용한 것이 그 예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용과정은 북한에서 일제 강점기에 쓰여진 용어를 모두 배제했다는 데에서 나타난다. 각급 학교에서 제2인자를 뜻하는 남한의 '교감'은 북한에서 '부교장'이라고 하는 경우와 '교사'를 '교원'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남한에서 사용하는 '평생교육' 또는 '생애교육'은 외국어의 번역(life-long education)이거나 일본식 표현(생애교육)인 반면, 북한에서는 이를 '종신교육'이라는 용어를 채용한다.

일곱째, 앞서 언급한 '말다듣기 운동'과 관련하여, 한자로 된 교육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려는 노력을 북한의 교육용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의 '깨우쳐주는 교수방식'에 일대일로 상응하는 남한의 교육용어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이 용어에 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남한 교육용어인 '계발식 교수방법', '발견식 교수방법' 등은 모두 한자어인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교육용어에서 모든 한자어가 배제된 것은 아니다. '강의에 늦게 들어간다'는 의미는 '지각'으로, '강의를 빨리 끝내는 것'을 '조강'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해 준다.

여덟째, 교육용어에 과거 항일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또는 김일성의 빨치산 경력 등과 관련된 용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교육사상에 '청산리 정신'을 가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항일 정신 등을 공산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교육에 원용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된 교육용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항일유격대식 학습'이다. 비단 교육용어가 아니더라도 학교의 이름에서 이러한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강계제2사범대학'이 '천리길대학'으로 개명된 것은 김일성이 항일투쟁 당시 만주-평양 간의 거리를 걸어다녔다는 '천리길'에서 유래된 것이다.

아홉째, 다른 영역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이지만, 교육용어의 경우에도 김일성과 김정일의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하여 생성된 용어가 있다. 또한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이라는 학교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학교명칭 등에 김일성의 개인적 사항을 교육관련 용어로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외에도 '김철주사범대학'(평양사범대학), '김형권사범대학'(함남제1사범대학), '강반석학원', '김정숙교원대학'(회령교원대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대학의 이름은 김일성 일가의 이름만을 사용

하지는 않는다. 종전의 대학이름을 바꾸면서 항일 혁명열사나 애국열사의 이름을 달아 고친 경우도 있다. '김책공업대학', '리계순대학'(사리원제1사범대학), '계응상대학'(사리원농업대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열째, 교육목적을 진술하는 데에 있어서 나타나는 교육용어의 특징은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즉 남한의 교육 관련 문헌 또는 교육과정 문서에는 '일반적인 가치진술어'를 통하여 교육목적에 진술되어 있는 반면에, 북한의 교육목적은 명시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죽어도 영광, 살아도 영광', '수령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하는 구호는 비단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인재의 양성 즉 교육목적과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다²⁴⁾. 이러한 교육목적의 진술은 그 형식상에 있어서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절'이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9월 5일을 '교육절'이라 하는데, 이 날은 1977년 수령이 '사회주의교육체제'를 발표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따라서 이 날은 대한 수령에게 감사를 드리는 날이지, 스승에게 감사를 드리는 날은 아니다. 달리 말하자면, 북한에는 남한의 5월 15일 '스승의 날'과 같은 순수한 교육적 의미를 가진 날이 없는 셈이다.

V. 맺는 말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간에 이질화되었던 학술용어를 통합하는 일과 그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은 현재의 단계에서는 매우 요원한 일이다. 그러나 남북간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이러한 작업은 방심하거나 유기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과

24) 북한의 교육에서 명시적인 교육목적은 물론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한 일체의 강령어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그 이면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보다 강력한 교육목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의미와 함께 명시적인 목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연구는 남북한 간의 문화 통합 작업을 위한 서곡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분석 연구를 통하여 추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남한의 학술용어가 외래 의존성이 매우 높은 반면, 북한의 학술용어는 학술용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폐쇄적인 경향이 있다. 이 점을 착안하여 향후 통합방안은 학술어의 우리말화를 지향함과 동시에 외래의 이론과 사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체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자본주의 배제 경향은 학문에 있어서의 독창성과 연구자의 개인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짙기 때문에 남북한의 통합된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개방성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특히 교육학의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학술용어들은 이론보다는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학문 활동은 그 실용성을 재기 이전에 그 이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평가하게 마련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이론을 일차적으로 분석한 다음 그 결과를 놓고, 이론으로서의 가치를 검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 작업의 결과는 통합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남과 북이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문화 통합의 측면에서 본 언어와 학술용어의 통합이라면, 이 연구가 시도했던 교육용어의 분석과 같은 작업이 다른 분야에서도 점증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것은 통일이 남북간의 단순한 물리적·지리적 결합이 아닌 통합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데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그리고 동시에 학자들이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수행해야 할 작업이기 때문이다.